

# 대한지리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지리학술대회와 지리학의 당면 과제

李 鶴 源\*

대한지리학회가 1945년 9월 11일에 창립되어 5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국제지리학술대회를 1995년 10월 13일, 14일 이틀에 걸쳐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대회에서 논의될 주제는 분단국토의 현실과 통일국토의 미래상, 21세기 한국 지리학의 도전, 한국 지리학의 반세기—회고와 전망이라는 3가지가 중심이 된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하여 2000년에 개최할 IGC 서울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역량을 축적하고, 지리학의 연구내용이 결국 인간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야만 학문적 연속성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진실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主要語** : 통일 한국의 공간구조, 한국 지리학의 과제, 지리교육의 과제, 지리학의 사회기여, 지리학의 전망, 인간생활의 질

## 1. 서 론

지리학 연구대상의 상당 부분이 우리들의 생활터전인 국토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학과 지리학자들은 지난 50년동안 국토분단의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분야에서는 다소 소홀히 다루어 왔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그동안 지리학 분야에도 극소수의 학자들이 통일될 국토공간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주어진 국토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하더, “일본해”라고 잘못 기명된 것을 “동해”로 바로 잡는 노력과 고지도의 발굴 및 체계적인 연구 등은 여타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 후 국토공간과 그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라던 지리학이란 학문이 가장 광범위하고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일각의 지리학에 대한 호의와 관심이 개인 지리학자의 탁월한 능력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우리가 한국 지리학의 발전과 연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만큼 국토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민족적 대과업에 지리학도 동참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새로운 각오를 가져야 하겠다.

1995년 9월 11일이 대한지리학회 창립 5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기념하면서 지난 50년간 한국 지리학이 발전해온 과정을 회고하고, 한국 지리학이 21세기에 도전해야 할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을 논의하여 지리학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모색하는 일은 반세기를 지내는 학계로서는 매우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특히 분단국토의 현실과 통일국토의 미래상에 대한 세미나 주제는 지리학이 국토분단의 극복을 위해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국제 지리학술대회를 통해서 남·북한의 공간구조와 그 바람직한 공간구조 개편을 살펴보고, 21세기 한국 지리학의 발전방향과 지리교육의 발전방향, 한국 지리학의 과제와 사회적 기여를 논의하고 토론하는 일, 20세기말의 한국 지리학의 회고와 전망을 통하여 희망찬 21세기를 맞으려는 학회의 노력은 높이 평가받아야 마

\*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망할 것이다.

2. 국제지리학술대회의 주제

1) 국제지리학술대회의 내용 구성

1945년 9월 11일에 창립된 대한지리학회는 금년으로 반세기를 맞이하였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국제지리학술대회를 개최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기념 행사와 기념 심포지움 1부, 2부, 3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3명의 외국지리학자의 초청강연과 25명의 국내지리학자들이 주어진 주제에 대해 논문을 발표하고, 학술토론과 분야별

전공 사회자를 포함하여 100여명의 학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대한지리학회 창립 이래 국내에서는 최대의 국제지리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그 내용과 계획은 보면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특히 10월 13일(금) 제 2부의 기념 심포지움에서는 중견 및 소장학자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져 지리학과 학회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 분단 국토의 현실과 통일 국토의 미래상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중요내용은, 통일될 국토상에 전개될 바람직한 공간구조

표 1. 대한지리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지리학술대회 내용과 계획

<p>첫째 날 : 10월 13일(금)</p> <p>등록 기념행사 기념식 대한지리학회장 기조 연설 내빈축사 IGU 사무총장 초청 강연 오찬 기념 심포지움 1부</p> <p>주제 : 분단 국토의 현실과 통일 국토의 미래상 특별강연 : 독일지리학자가 본 남·북한 ; 공간구조의 비교 제 1 주제 : 분단 반세기의 남·북한 공간구조 제 2 주제 : 통일 국토의 미래상—통일 국토의 공간구조 개편</p> <p>&lt;휴식&gt; 종합토론 만찬 기념 심포지움 2부</p> <p>주제 : 21세기 한국 지리학의 도전 특별강연 : 21세기의 지리학 ; 그 전망과 기여</p> <p>분과별 토론 제 1 분과 : 21세기 지리학의 전망 제 2 분과 : 21세기 지리교육의 과제 제 3 분과 : 21세기 지리학의 사회 기여 제 4 분과 : 21세기를 향한 한국 지리학의 과제 종합토론</p>	<p>둘째 날 : 10월 14일(토)</p> <p>기념 심포지움 3부</p> <p>주제 : 한국 지리학 반세기—회고와 전망 특별강연 : 대한지리학회 반세기의 회고와 전망 분야별 연구 성과와 과제 A. 자연지리학 A-1 지형학 / 토론 A-2 기후학 / 토론 A-3 자연지리학 일반 토론 B. 인문지리학(I) B-1 경제지리학 / 토론 B-2 도시지리학 / 토론 C. 인문지리학(II) C-1 문화·역사지리학 / 토론 C-2 사회·인구지리학 / 토론 C-3 정치지리학, 인문지리학 일반 / 토론 D. 응용지리학 D-1 지도학 및 GIS / 토론 D-2 지리교육론 / 토론 D-3 지역개발, 응용지리학 일반 / 토론 &lt;휴식&gt; 기념 심포지움 종합보고 제 1 부 : 분단 국토의 현실과 통일 국토의 미래상 제 2 부 : 21세기 한국 지리학의 도전 제 3 부 : 한국 지리학의 반세기—회고와 전망 축하 리셉션</p>
---	--

자료출처 : 대한지리학회, 1995, 대한지리학회보, 제45호, pp.3-4.

를 설계하는 일과, 21세기에 도전해야 할 한국 지리학의 방향설정 및 반세기 동안 발전해온 한국 지리학의 회고와 전망을 하는 일이다. 통일 될 국토상의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발전시킨다는 것을 미리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천한 방안을 생각해 두는 것은 1990년 초에 갑자기 통일이 찾아온 독일의 경우를 생각해 보더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를 지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모임에서 논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리학자들은 항상 지표의 자연과 그 곳에 거주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공간구조와 그 변화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문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이나 통일국토공간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기관과 논문집은 대한지리학회의 “대한지리학회지” 외에도 많이 있다. 대표적인 것을 보면, 사단법인 평화문제 연구소의 “통일문제연구” 국토개발연구원의 “국토연구”, “국토정보”,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의 “통일경제”, 민족통일중앙협의회의 “통일”, 사단법인 대한국토계획학회의 “국토계획” 등이 있고, 단행본으로 나온 것으로는 대통령자문 21세기 위원회에서 펴낸 “21세기의 한국—2020년을 바라본 장기정책과 전략“, 인간사랑사의 학술총서로서 발간한 “남북한 통합론—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 나남출판사에서 발간한 “21세기 한국의 사회발전 전략—성장·복지·환경의 조화“, 성균관대학교 출판부의 “진환기의 분단국 문제”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각 연구기관의 논문집이나 단행본의 내용을 보면 그 대부분이 남북한과 통일된 국토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의 통합과 그 통합에 따르는 문제점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연구되어야 하고 중요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통일된 국토가 선진공업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공간구조를 설정하는 연구나, 통일 이전에 남북한이 투자해야 할 사회간접자본의 중복성과 우선 순위 및 장소나 위치에 관한 연구가 미약하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 같다. 이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로는, 류우익

(1993)과 김인·허우공·박영환·박삼옥·유근배·최병선(1993)·주종원·김현수·유영욱(1994) 등의 몇 편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 발표된 국내의 연구논문 내용을 보면 크게 2분야로 나눌 수 있다. 그 첫째가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통한 통일기반 구축과 남북한 위상제고에 관한 연구이고, 두번째가 남북한의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각종 자원의 분포와 개발에 관한 연구이다. 전자에 관한 연구로는 안두순(1993), 배종렬(1994), 홍택기(1994), 구분학(1995), 박순성(1995), 박형중(1995), 정진호(1995), 황의자(1995) 등이 있으며, 후자의 연구에는 김한태(1994), 박성훈(1994), 오재학(1994), 이장춘(1994), 지창룡(1994), 최승담(1994), 박헌주(1995), 최광석(1995) 등의 연구가 있는데, 이들 연구가 주제와 관련된 두드러진 논문들이다.

1990년 초 독일의 갑작스러운 통일은 한민족에게도 큰 희망을 갖게 하였으며,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독일의 경우를 통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열의가 한국국제정치학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러나 지리학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공간적인 분야로서, 통일 독일의 각 지역이 어떤 기능을 가지면서 발전해 나가며, 어떤 독창적인 공간구조를 형성해 나가느냐 하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독일이나 한국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국내외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한 분야를 보면, 대개 4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통일국가로서의 독일실태에 관한 연구, 둘째 동·서독에 대한 강대국들의 정책과 통독관계법의 연구, 셋째 독일의 분단과 통일이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 넷째 독일통일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에 관한 것이다. 첫째 연구로는 민족통일중앙협의회가 1994년에 “통일”이란 논문집에 5회에 걸쳐 특집으로 엮은 다양한 연구가 있고, 두번째 연구로는 박사명(1975), Yong Soon, Yim(1978, 1988), Soon Sung Cho(1982), Griffith(1987), Adomeit(1990), Pfeiler(1990), 김승조(1994)의 연구가 있다. 셋째 연구는 정중재(1975), Röder(1990)의 연구가 있고, 네번째 연구로는 이용

필·임혁백·양성철·신명순(1992)의 연구가 있다.

지리 학자들의 학문적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이 남북한의 지역 연구와 공간구조의 설정 및 계획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만이라도 이 분야의 연구에 적극 참여하여 민족의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여 지리학의 성과를 높였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 3) 21세기 한국 지리학의 도전

기념 심포지움 제 2부 주제가 “21세기 한국 지리학의 도전”이다. 이런 주제로써 학회의 공식적인 연구나 토론이 있었던 적은 없다. 그러나 이미 한국 지리학의 도전은 시작되었다. Johnston (1993)은 지리학의 도전(The Challenge for Geography)이란 저서를 통해서 변화하는 세계에서 연구주제도 그 연구방법도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연구하는 것이 바로 지리학이 도전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였다. 즉 20세기말의 지리학이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시기에 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 학회는 지난 50년 동안 동학자들의 계속된 학문연찬과 해외유학에서 돌아온 중견·소장 학자들이 대거 포진해 있기 때문에, 21세기의 세계적인 학문수준에 도전할 수 있는 저력을 갖추었다고 본다. 본학회의 2000년 서울세계지리학회대회 유치와 IGU 산하의 세계 각 지역의 학술대회에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여 훌륭한 학술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이다. 능력을 갖추었다면 21세기에 도전해야 할 한국 지리학의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지리학이 21세기의 한국에서 매우 중요한 학문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고 전망할 수 있겠는가? (한국 지리학의 전망). 21세기 한국의 지리교육이 학생들에게 통찰력과 창의력을 길러주고 지리적인 현상을 통해 원리와 법칙을 발견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과 학습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겠는가? (지리교육의 과제). 21세기엔 지리학이 지리학 학문 자체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생활의 질적인 향상과 행복을 위해 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겠는가? (사회기역). 미래학자들의 견해로는 2020년 경까지는 남·북한이 통일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에 동참하기 위해 통일 이전에 지리학자들이 지리학이란 학문으로써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것이 있겠는가? 남·북한 지리학자들의 공동연구는 불가능한 것인가? 통일 이후에는 지리학자들이 지리학이란 학문연구로서 어느 분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겠는가? (한국 지리학의 과제). 이러한 물음들이 21세기를 5년 앞둔 한국 지리학자들이 자문하면서 도전해야 할 문제들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답을 얻기 위한 본학회 중견 학자들의 진지한 노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본 학술대회를 통하여 회원들의 희망이 꺾어지고, 회원 상호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물음에 대한 감응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세계의 경제구조가 포스트포디즘의 조직체제로 급변하면서 인간과 자연과의 상호교섭에서 얻어지는 독특한 지역경관과 공간구조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엔 지리학의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올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경향은 이미 우리 지리학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대한지학회의 논문집인 대한지리학회지의 최근(1993, 1994) 연구논문 가운데는 경제지리분야의 김두일·이형호·한욱(1993), 이덕안(1993), 이희열(1993), 조수경(1993), Deog-An Lee(1993), Jae-Heon Choi(1993), 박삼옥(1994), 최병두(1994), Jeong-Rock Lee(1994), Hee-Yeon Lee(1994) 등의 논문과 도시지리분야의 박선미(1993), 한주성(1993), Hak-Hoon Kim(1993), Tae-Kyung Koh(1994)의 논문, 자연지리분야의 이현영·이승호(1993), 류상범·문승의·이부용(1993), 전영권(1993), 박수진(1993), Min-Boo Lee(1993), Jae-K. Lee·Soon-Shick Kwon(1993), 지리교육분야의 서태열(1993, 1994), 심광택(1994) 등의 논문들이 새로운 도전 형태를 다양하게 제시·시사해주고 있다. 특히 지리정보시스템의 발전과 컴퓨터의 이용은 지리학의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을 다양하

고 논리실증주의적 과학적 연구방법을 발전시켜 오면서 그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국내 지리학도들에게 많은 시사점과 도전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면, 경제지리 분야의 Dicken(1992), Hayter · Harvey(1993), Henderson · Castells(1987), Knox · Agnew(1990), Peet(1991), 도시지리분야의 Angotti(1993), Brotchie · Batty · Hall · Newton(1991), Herbert · Thomas(1991) 등의 저서가 있으며, 그 밖에 Caporaso(1987), Daniels(1991) 등의 연구도 연구대상과 연구주제, 연구방법이 우리들의 깊은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환경론을 저술한 TO'Riordan(1981), 지역을 사회환경 시스템 구조로 고찰한 Nir(1990)의 연구, 공간을 생활공간, 경제공간, 새로운 산업공간으로 인식하면서 그 변화를 고찰한 연구로서 Benko · Dunford(1991), Bennett(1977), Friedmann(1988), Werlen(1993) 등이 있다. 세계 구조의 변화에 관한 Wallerstein(1991)의 연구, 지리학과 사회정의의 Smith(1994)의 연구, 제조업의 변화에 대한 Tailby · Whiston(1989)의 연구, 기술과 경제발전의 Malecki(1991), 후기산업사회의 미국에 대한 Clark(1985)의 연구, 지리적 이 미테이션에 대한 Gregory(1994)의 연구 등이 현재와 미래의 지리학 발전방향을 시사해주고 있는 주요한 연구물이라고 생각한다.

#### 4) 한국 지리학의 반세기—회고와 전망

기념 심포지움 제 3부의 주제는 “한국 지리학의 반세기—회고와 전망”이다. 본 학회는 1975년 11월 30일에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본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심포지움을 갖은바 있다. 중등교사 중심의 조선지리학회로 발족한 1945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50년 동안 본 학회는 장극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회원의 총 수가 1,000여 명에 이르르고, 연 4회(1회 영어판)의 학회지를 발간하여, 2000년에는 세계최고권위의 지리학술대회인 서울 세계지리대회를 유치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한지리학회와 한국지리교육학회, 한국지형학회,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한국사

진지리학회, 한국지역지리학회, 자연지리연구회, 부산지리연구회, 서울시중등지리교사연구회 등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단체가 창설되고 연구 또한 활발하여 연구 논문을 계속 발간하는 학술 단체도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우리회원 모두의 기쁨이고 영광이다. 제 3부 심포지움에는 자연지리학, 인문지리 I, 인문지리 II, 응용지리학의 4분과가 있다.

30주년 기념심포지움의 회고와 전망에서 박노식·박동원(1975)은 지형학 분야의 소분야까지 고른 연구가 있기를 바랐으며, 기후학 분야의 김연옥(1975)은 기후경관, 기후순응, 기후 지각 분야의 연구를 촉구하였다. 도시·촌락지리학 분야의 강대현(1975)은 초보적인 연구와 미개척 분야가 많으며, 지리적 연구와 정태적인 연구도 필요하며, 새로운 방법론의 전개와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지리학 분야의 형기주(1975)는 입지론의 활용, 경제·공업·도시의 연계적인 연구방법 연구, 재래공업지의 변용과정과 재래공업의 존립상태의 연구추구, 주체적인 지역연구의 축적을 촉구하였다. 역사·문화지리학 분야의 노도양·장보웅(1975)은 문화경관의 복원과 각 대학지리학과에 문화지리 강좌개설을 촉구하였으며, 지리교육분야의 정장호(1975)는 대학에서 한국지리 교양필수과목을 개설하고 지리학자나 지리교육자 중에서 교육행정이나 각 행정처에 많이 진출하여 지리학 발전에 기여해 주길 요망하였다. 응용지리학 분야의 조동규(1975)는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각자의 전공능력을 키우는 것이 이분야의 발전을 위한 최대의 관건이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20년 전의 전망 결과는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해 재음미 될 것이며, 새로운 연구 방향이 모색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분야이든시간에 인간의 생활세계와 유리된 학문과 연구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대전제를 잊어서는 안되겠다.

이번 학술대회의 바람직한 연구방향을 제시해 보면, 제 1부의 분단국토의 현실과 통일국토의 미래상에서는 국토통일이라는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지리학자로서 통일이전에 연구해야 할

주제와 통일 이후에 연구해야 할 주제를 설정하는 것이며, 독일의 통독 이전의 준비와 경험, 통독 이후의 계획을 참고로 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을 설정하고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리학자로서 가장 알맞는 연구주제 중의 하나가, 통일된 국토가 선진공업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지역연구나 공간구조를 구상하는 것이며, 통일 이전에 남북한이 투자하는 사회간접자본의 중복과 우선순위 및 장소, 위치에 관한 연구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제 2부의 21세기 한국 지리학의 도전에서 제시되어야 할 연구방향은 인적자원을 갖춘 한국 지리학이 지향해야 할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은 어떤 것이 있으며, 지리학이 중요한 학문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며, 남·북한 지리학자들이 통일 이전에 지향해야 할 학문적 공통점을 모색해 보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이다. 또한 지리교육에서 통찰력과 창의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여건과 학습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며, 먼저 지리교육자들이 할 수 있는 일과 범위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모색해 보는 일이다. 제 3부의 한국 지리학의 반세기—회고와 전망—에서는 최근의 지리학 연구가 컴퓨터나 지리정보시스템의 발달로 연구하는 대상과 주제가 다양해지고, 연구방법 또한 논리실증적 과학적인 방법과 인간 주제적 가치 중심의 접근방법이 병행하여 있을 수 있으나, 지리학의 연구가 지리학문 스스로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인간생활의 질을 높이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만 학문으로서 당당한 위치를 견지하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의 확산과 학문연구의 동참이야말로 주어진 이 시대 지리학자들의 의무이며 책임이라고 본다.

### 3. 결론 및 시사점

학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국제지리 학술대회의 개최는 2,000년 서울에서 개최하는

IGC 서울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역량을 축적하고, 학회조직의 기능과 역동적인 능력을 총검검해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대가 큰 것은, 국토 공간구조에 관한 한 어느 학문보다도 깊은 관심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할 지리학자들이 국토분단 50년이란 긴 세월을 지내는 동안 통일된 국토에 관해 어떤 형태의 공간구조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지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또한, 학회 차원에서 통일국토의 공간구조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발표·제시함은 물론, 회원들간의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는 내용으로 다듬는 일이다. 독일의 지리학자를 초빙하여 통독 이전과 이후에 기여한 독일 지리학자들의 공간구조 설정에 관한 연구활동 내용과 그 방법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은 통일한국의 공간구조 설정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제 2부 세미나에서 초청 강연으로 듣게 되는 “21세기의 지리학, 그 전망과 기여”라는 강연은 한국 지리학도들에게 가장 최근의 세계 지리학 연구방향과 연구방법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하며, 한국 지리학이 세계 지리학의 발전과정에 위치하는 좌표를 알려주어, 학회 활동의 내실화와 학회 회원들의 연구활동을 격려하고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20세기말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철학사상을 접한 한국 지리학자들이 지리학이라는 학문으로써 국토분단 50년의 제조건을 뛰어넘는 한국 고유의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를 바라고 있다. 분단 국토가 갖고 있는 고유한 공간구조가 지리학도들에게 시사하는 점은 무엇이겠는가? 동서 냉전체제의 마지막 유물로 남은 휴전선이 없어지고, 국토가 통일되어 선진 공업 국가로 지향하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국토 공간은 어떤 형태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주제들이 이번 국제 학술대회를 통해서 문제로서 제기되고 토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토론 과정은 후학들에게 우리의 고유한 지리적 현상과 지리적 연구 영역안에서도 세계적인 관심과 기대를 걸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우리 실정에 맞는 연

구방법을 새롭게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촉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제 3부 세미나에서 “한국 지리학의 반세기—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과 지리학 각 분야별 연구 성과와 과제가 논의된다. 이 세미나는 학회창립 30주년 기념학술대회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학술대회이고, 그 동안에 이룩한 지리학 각 분야별 평가와 비판은 물론이러이와, 회원 각 개인의 연구 성과와 업적이 객관적으로 언급되고 평가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할 것이다. 따라서, 어떤 분야의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든지간에, 한국 지리학계 전체의 평가와 각 분야별 연구의 결과와 비판에 이어 새롭게 개척되어야 할 분야가 제안될 것이다. 이러한 학계의 비판과 제안은 회원 각자의 연구에 활력소가 되고 격려가 되어, 개인의 발전은 물론이러이와 결국 한국 지리학계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본 학회창립 50주년기념 국제지리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모든 내용이, 논문집으로 발간되어 대한지리학회 회원 1,000명에게 뿐만 아니라 학계, 정치, 경제계, 언론계, 각 연구기관 및 대학 도서관에 배포되어 이용되길 바란다. 특히 지리학을 연구하는 지리학자나 지리교육자들은 향후 21세기 초반 국토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리학이나 지리교육의 연구에 큰 영향을 끼칠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부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가능한 한 특별 보급판을 만들어 각 대학의 지리학과와 지리교육과에 재학생인 학부생이나 대학원 학생들에게도 배포되길 바란다. 지리학 연구의 올바른 방향과 지리학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깊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같은 노력은 이들이 사회의 일원이 되어 한창 일하고 있을때 국토통일의 기쁨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 이들이 국토공간구조의 발전 방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공간구조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으면, 통일 국가의 선진 공업국으로의 발전을 도모할 기회나 계기가 주어졌을때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토분단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연구기관, 국회의원, 정부 각 부처 장

차관, 경제계, 재계, 각 학술연구구단체, 대통령 자문 21세기 위원회 등에도 기증하여 국토분단 극복을 위한 국민의 노력에 동참하는 지리학계의 학문적 연구와 노력을 이해시키고 2,000년 IGC 서울세계지리대회 개최에 대한 사전 이해와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를 삼았으면 한다.

## 文 獻

- 강대현, 1975, “도시·촌락지리학”, 지리학, 제 13호, 대한지리학회, 20-27.
- TaeKyung Koh, 1994, “Implication of Capital Restructuring on Urban Development: Chicago Politics as the Local Contingent Factor for Urban Restructuring,”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Volume 29, Number 4, 420-437.
- 구분학, 1995, “북한의 신무역체제와 남북경협,” 통일경제, 2월호,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16-129.
- 김두일·이형호·한옥, 1993, “GIS기법을 이용한 최적입지 선정연구-서울-동두천 간의 최적방어지역선정”, 지리학, 제28권, 제 2호(통권 50호), 137-147.
- 김승조, 1994, “통독관계법연구: 국가조약을 중심으로 본 통독과 동독의 체제전환”, 통일, 통권 153호, 민족통일중앙협의회, pp.64-77.
- 김연옥, 1975, “기후학”, 지리학, 제13호, 대한지리학회, 13-19.
- 김인·류우익·허우금·박영한·박삼옥·유근배·최병선, 1993, “국토관리의 방향정립을 위한 국토진단-전문가 집단의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 29권, 제 1호(통권 53호), 대한지리학회, 16-38.
- Hak-Hoon Kim, 1993, “Urban Industrial Structure and Diversification: Converging Trend among Urban Economics,”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Volume 28, Number 4, 354-375.
- 김한태, 1994, “남북한 철도망 연결의 과제”,

- 통일, 2월호(통권 149호), 민족통일중앙협의회, 44-53.
- 노도양·장보웅, 1975, “역사·문화지리학”, 지리학, 제13호, 대한지리학회, 36-40.
- 류상범·문승의·이부용, 1993, “남한의 하계강 우량의 시계열분석”, 지리학, 제28권, 제3호(통권 51호), 대한지리학회, 193-199.
- Woo-Ik Yu, 1993, “The Northeast Asian Rim: A Geopolitical Perspective,”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Volume 28, Number 4, 312-320.
- 민족통일중앙협의회 편집실, 1994, “독일통일 2년, 각 분야별 통합추진: 사회분야 통합”, 통일, 2월호(통권 149호), 90-95.
- 민족통일중앙협의회 편집실, 1994, “통일국가 독일의 실태: 통독직전·구동독 경제위기의 대책”, 통일, 9월호(통권 156호), pp. 85-93.
- 민족통일중앙협의회 편집실, 1994, “통일국가 독일의 실태: 통일 독일의 90년대 경제정책”, 통일, 11월호(통권 158호), 66-79.
- 민족통일중앙협의회 편집실, 1994, “과거 양독 관계에서 적십자사 역할과 구동독 피난민 정착 지원 문제”, 통일, 12월호(통권 159호), 76-88.
- 박노식·박동원, 1975, “지형학”, 지리학, 제13호, 대한지리학회, 7-12.
- 배종렬, 1994, “북한 외자정책과 대북투자 활성화 방안”, 통일문제연구, 제6권, 1호(통권 제21호), 평화문제연구소, 123-155.
- 박사명, 1975, “동·서독 관계 변화와 미·소의 정책”, 전환기의 분단국 문제, 사회과학연구소 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85-216.
- 박삼옥, 1994, “첨단산업발전과 신산업지구 형성: 이론과 사례”, 대한지리학회, 제29권, 제2호(통권 554호), 117-136.
- 박선미, 1993, “도시공간의 변화에 내재한 정치·경제적 논리의 규명-서울시 도심 재개발을 대상으로-”, 지리학, 제28권, 제3호(통권 51호), 대한지리학회, 213-226.
- 박성훈, 1994, “북한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및 민간기업 설발 투자문제”, 통일, 10월호(통권 157호), 민족통일중앙협의회, 26-43.
- 박수진, 1993, “수문학적 자료를 통한 화강암질 유역의 화학적 풍화 특성에 관한 연구”, 지리학, 제28권, 제1호(통권 49호), 대한지리학회, 1-15.
- 박순성, 1995, “남북 경제교류·협력과 북한의 변화 전망”, 통일, 1월호(통권 160호), 민족통일중앙협의회, 34-51.
- 박현주, 1995, “북한의 국토 기반시설 현황과 과제”, 통일경제, 통권 3호, 현대경제사회연구원, 58-70.
- 박형중, 1995, “북한 경제정책의 기본틀과 그 결과”, 통일경제, 4월호(통권 제4호), 현대경제사회연구원, 97-111.
- 서태열, 1993, “1980년대 이후 미국지리교육 부흥운동의 전개과정과 그 시사점: 지리학, 지리교육, 그리고 교육정책의 관계”, 지리학, 제28권, 제2호(통권 50호), 대한지리학회, 163-178.
- Tae-Yeol Seo, 1994, “Recontextualizing Geography Curriculum: Society, Student and Discipline of Geography,”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Volume 29, Number 4, pp. 438-449.
- 심광택, 1994, “수업설계론과 수업구조화-일본 고등학교 도시단원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 제29권, 제2호(통권 54호), 166-182.
- 안두순, 1993, “통일후 남북간 경제통합을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의 모색”, 통일문제연구, 제5권, 3호(통권 제19호), 통일원, 123-148.
- 오재학, 1994, “남북한 통합교통체계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통일, 5월호(통권 152호), 민족통일중앙협의회, 50-59.
- 이덕안, 1993, “유연적 전문화(Flexible Specialization): 현대 산업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리학, 제28권, 제2호(통권 50호), 대한지리학회, 148-162.
- Deog-An Lee, 1993, “Direct Foreign Investment of Korean Firms: The Case of Samsung Group,”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 Society, Volume 28, Number 4, pp. 376-387.
- Min-Boo Lee, 1993, "Diffusion Equation Model for Geomorphic Dating,"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Volume 28, Number 4, 285-296.
- 이용필 · 임혁백 · 양성철 · 신명순, 1992, "독일 통일 현실과 한반도통일 전망", 남북한 통합론-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 인간사랑사, 부천시, 89-152.
- 이장춘, 1994, "통일시대의 관광사업, 전망과 대책", 통일, 3월호(통권 150호), 민족통일중앙협의회, 74-91.
- Jae K. Lee · Soon-Shik Kwon, 1993, "Estimating the Impact of Sea Level Rise Using Geoprocessing and Simulation Modeling,"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Volume 28, Number 4, pp. 297-311.
- Jeong-Rock Lee, 1994, "Information Technology and Chang in Firm Activities: A Case of the Service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Volume 29, Number 4, pp. 402-419.
- 이현영 · 이승호, 1993, "장마시작일 예측 모델", 지리학, 제28권, 제 2 호(통권 50호), 대한지리학회, 112-122.
- Hee-Yeon Lee, 1994, "Regional Development in Economic Restructuring toward the Information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Volume 29, Number 4, pp. 377-401.
- 이희열, 1992, "부산시 소규모공업의 입지와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지리학, 제28권, 제 1 호(통권 49호), 대한지리학회, pp. 16-39.
- Yong-Soon Yim, 1978, Two Korea; Unification Policy and Strategy Baltimore: University of Maryland.
- Young-Soon Yim, 1988, "Politics of Korean Unification: A Comparative Study of Systemic Outputs" (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of Korea)
- 전영권, 1993, "태백산맥 남부산지의 암설사면 지형", 지리학, 제28권, 제 2 호(통권 50호), 대한지리학회, 77-98.
- 정장호, 1975, "지리교육", 지리학, 제13호, 대한지리학회, 41-49.
- 정진호, 1975, "남북경제협력과 한국의 세계화", 통일, 1월호(통권 160호), 민족통일중앙협의회, 34-51.
- 조동규, 1975, "응용지리학", 지리학, 제13호, 대한지리학회, 50-56.
- 조수경, 1993, "부산컨테이너 수출항의 배후지와 공간구조", 지리학, 제28권, 제 3 호(통권 51호), 대한지리학회, 247-267.
- Soon-Sung Cho, 1982, "American Policy Toward Korean Unification, 1945~1980," U.S Korean Relations, 1882~1982, edit., Tae-Hwan Kwak, etal.(Seoul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 주종원 · 김현수 · 유영욱, 1994, "북한 국토 및 도시계획 연구: 통일에 대비한 국토개발구상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제29권, 제 4 호(통권 74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5-26.
- 지창룡, 1994, "한반도의 지형과 통일의 전망", 통일, 1월호(통권 148호), 민족통일중앙협의회, 30-32.
- 최광석, 1995, "남북한 경제통합의 필요자본량 추정", 통일경제, 통권 제 4 호,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40-148.
- 최승담, 1994, "남북관광자원 공동개발안", 통일, 4월호(통권 151호), 민족통일중앙협의회, 76-86.
- 최병두, 1994, "산업구조 조정과 지역불균등 발전: 1980년대", 대한지리학회지, 제29권, 제 2 호(통권 54호), 137-165.
- Jae-Heon Choi, 1993, "Spatial Analysis of Financial Activities in the Korean Urban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Volume 28, Number 4, pp. 320-353.
- 한주성, 1993, "도매업 판매활동에 의한 한국의 도시유형 변화", 지리학, 제28권, 제 3 호(통권 51호), 대한지리학회, 200-212.
- 형기주, 1975, "경제지리학", 지리학, 제13호,

- 대한지리학회, 28-35.
- 황의각, 1995, "대북한 경제협력과 한국의 선택", 통일, 2월호(통권 161호), 민족통일중앙협의회, 72-83.
- 홍택기, 1994, "남북경협과 나진·선봉 자유경제지대 투자 진출", 통일, 11월호(통권 158호), 민족통일중앙협의회, 44-55.
- Adomeit, H., 1990, "Gorbachov and German Unification," *Problem of Communism*, July-August, pp.1-23.
- Bennett, C., 1977, *Spaces for People*, Prentice-Hall, New Jersey, pp.1-195.
- Benko, G., and Dunford, M., 1991, *Industrial Change and Regional Development: the transformation of new industrial spaces*, Belhaven Press, London and New York, pp.1-329.
- Brotchie, J., Batty, M., Hall, P., Newton, P., 1991, *Cities of the 21st Century*, Halsted Press, New York, pp.1-446.
- Caporaso, J.A., 1987, *A Changing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Lynne Rienner, Boulder and Frances Pinter, London, pp.1-249.
- Clark, D., 1985, *Post-Industrial America*, Metkuem, New York and London, pp.1-220.
- Daniels, P.W., 1991, *Services and metropolitan development*, Routledge, London, pp.1-331.
- Dicken, P., 1992, *Global shift*, the Guilford press, New York, pp.1-492.
- Friedmann, J., 1988, *Life Space and Economic Space*, Transaction Books, New Brunswick and Oxford, pp.1-322.
- Gregory, D., 1994, *Geographical Imaginations*, Blackwell, pp.1-442.
- Griffith, W.E., 1987, "The American View," in Edwina Moreton, ed., *Germany Between East and west*, Cambridge University Press, p.50.
- Hayter, T. & Harvey, D., 1993, *The Factory and The city*, Mansell, pp.1-308.
- Henderson, T. & Castells, M., 1987, *Global Restructuring and Territorial development*, Sage, pp.1-256.
- Herbert, D.T., Thomas, C.J., 1992, *Cities in space city as place*, David Fulton, London, pp.1-340.
- Knox, P., and Agew, T., 1989, *The Geography of the world Economy*, Edward Arnold, pp.1-410.
- Malecki, E.J., 1991, *Technology and economic development*, Longman Scientific & Technical & Technical, pp.1-495.
- Nir, D., 1990, *Region as a socio-environmental system*, Kluwer Academic publishers, pp.1-182.
- Peet, R., 1991, *Global Capitalism*, Routledge, London, pp.1-206.
- Pfeiler, W., 1990, "Soviet-German Relations and German Unification," (1990년 8월 17~18일 한국 국제정치학회 주최 '세계 질서의 새로운 변화와 남북한의 역할'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발표된 논문).
- Röder, K.H., 1990, "New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order and the 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1990년 8월 17~18일, 한국 국제정치학회, 세계 질서의 새로운 변화와 남북한의 역할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발표된 논문), pp.17-18.
- Smith, D.M., 1994, *Geography and Social Justice*, Blackwell, Oxford and Cambridge, pp.1-325.
- Tailby, S., and Whitston, C., 1989, *Manufacturing Change*, Basil Blackwell, pp.1-226.
- TO' Riordan, 1981, *Environmentalism*, Pion Limited, London, pp.1-409.
- Wallerstein, I., *Geopolitics and Geocul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pp.1-242.
- Werlen, B., 1993, *Society, Action and Space*,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pp.1-249.

# The International Geographical Symposium for the 5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The Pressing Problems in Korean Geography

Lee, Hak-Won\*

## Summary

This International Geographical Symposium is to commemorate the 5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KGS) which is the headquarter of the geographical study will be play a main role to promote International Geographical Conference(IGC). And KGS hopes to prepare for the success of IGC and to examine the ability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for holding IGC in Seoul, in 2000. Above all, we expect to confirm what vision of the spatial structure our geographers have had for the last 50 years and in the position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we present various studies on the spatial structure of the Unified Korea and through the discussion of the members we are going to lead our common interest to the key of reunification and motivate this studies more actively. We think that German geographers who have been studying the establishment of the spatial structure before and after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will help in setting spatial structure of reunified Korea.

In the second part of seminar, we will have a lecture on "Geography in the 21st Century; its Perspectives and Contribution". This lecture will propose the trends of international geogra-

phical study and discipline, to Korean geographers and encourage them to realize what position we are in on the level of international geography and intensify their study. In the end of twentieth centuries, Korean geographers, who access to postmodernism, hope to develop the unique subject matter and discipline regardless of the 50 year-parti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study of geography. What can we suggest to geographers under the unique spatial structure of the divided peninsula? How will our country develop in the future when DMZ, the last remains of cold war, vanishes and our reunified country becomes? These subject matters will be issued in this International Geographic Conference. These issued subject matters and procedures of discussion will stimulate younger students to have interest in our unique geographic environment and to set up their own method of study.

In the third part of seminar, a special lecture on "Half-century of Korean Geography: It's Reflection and Perspective", the product and the subject of each part in geography will be discussed. Because this seminar is for the first time in 20 years after the 30th anniversary, the evaluation and the comment of each field in geography will be focused on because the achievement of each member's study is evaluated and referred to objectively. The newly developed

\* Professor, Dept. of Geography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field will be proposed, as well as the evaluation and the result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The criticism and the propos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will encourage the study of each member. And it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We hope all the issued papers to be published as a treatise and circulated to all members, university libraries, each institution etc. There is no doubt our research and study will affect geographers and geography teachers to use this treatise. If possible, we will make public editions to distribute widely for students who study geography. It will help students to study geography encouragingly and to understand a

correct structure and to commit themselves to promote the developed industrial country when they are playing a leading part in society. And we will contribute this issue to all the institutes such as the congress, each department of government, the political parties, the economic circles and private institutes, in order to make them understand our academic efforts and activities. Besides, we hope this contribution will give them much understanding and interest about 2000 IGC in Seoul beforehand.

**Key Words:** spatial structure of unified Korea, the pressing problems in Korean Geography, problems of geography education, social contribution of geography, perspective of Geography, quality of life.